







..... 평신도 또는 평신도 사도직이란 말은 교회의 안에서 부자되기  
 ..... 한 것이 아니라 비록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있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 10년 전부터는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평신도 사도직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문 연**

(본도)  
(平協 8월)

교회의 안에서는 부자되기  
 ..... 한 것이 아니라 비록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있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 10년 전부터는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평신도 사도직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教會와 平信徒



## 教會는 時代感覺 맞춰 社會와 함께 숨쉬어야



◆공의회는 教會의 社會參與사명이 증대함에 따라 적극적인 平信徒 活動을 추구하고 있다.

교회의 안에서는 부자되기  
 ..... 한 것이 아니라 비록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있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 10년 전부터는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평신도 사도직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韓國의 平信徒 활동 아직 未洽

공의회 10년지났지만 아직 聖堂방청객신세 못벗어  
 教會의 社會參與度 增大 따라 平信徒 활동 擴大돼야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 평신도 사도직(平信徒)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祝)

### 「平協」 창간

平協創刊을 祝賀합니다  
 봉사·희생·사랑정신으로  
 평협활동을 강화하시도록

가톨릭서울대교구 矯導所 後援會  
 회장 김현주 (마리아)  
 지도신부 한정관 (바울로)

참된 영성생활의 길잡이

### 공동체의 기도서

☐ 성서를 바탕으로 삼아 한결같이  
 환기시키는 기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공동체의 기도서.  
 ☐ 가톨릭전례시제를 생생하게 체험  
 하게 하며 공동체의식을 보다 깊고 넓  
 게 느낄 수 있도록 짜인 복상서.  
 ☐ 가정과 교회 모든 단체인 회원들이  
 자기 환경에 알맞게 공동으로 복상  
 할 수 있는 참된 영성생활의 길잡이

W. 스토리 지음  
 연영호 옮김 / 가톨릭출판사 발행  
 △ 4×6판 114면  
 △ 반양장 450원

\* 주문: 가톨릭출판사·전국지사부급소  
 C.C.K.·성바오로출판사 및  
 유명서점(전국)

(祝)

### 「平協」 창간

#### 김대섭 外科

\* 전문과목: 成形外科  
 원장 김대섭(미카엘) 博士

☎ 776-1452

서울·중구 충무로2가 66-10  
 (충무로대극당건너편·문래가구2층)

塗装工事免許業体

### 東邦工營株式會社

① 塗料(페인트) 都散賣  
 ② 工事請負

장권순 (니코나오) 30次

☎ 28-7556  
 28-2569  
 (自) 712-3721

서울 中區 會賢洞 1가 194-24  
 (會賢洞會 앞)

# 서로 激勵하며 어려운 일 共同解決

## 第 3 地區 平協 창립 한뫼를 맞으며... 金基喆 · 스테파노

### 1 창 설

지난 1975년 10월 20일 당시 청량리본당 주임 조인환 신부님의 소집으로 제 3 지구 각 본당 사도직협의회 회장님들이 청량리성당에서 자리를 같이 한 것이 결국 창립총회가 된 셈이다. 1965년 제 2 차 바티칸공의회에서 평신도에게 진 바림과 기대가 있었는지 10년 후였으니 만사지감 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첫 모임에는 제 3 지구 17개 본당 중 6개 성당은 회장선정이 없었고 21개 본당은 불참하여 지도신부님과 평협사무국장 이승우형제가 참석하신 가운데 10개 성당(변복동, 담십리, 전농동, 청량리, 이문동, 상봉동, 중곡동, 성수동, 천호동, 화양동) 회장님들은

1) 지구 회장단이 서로 친목을 도모한다.  
2) 지구내 각 본당간 협력을 도모한다.

3) 아이디어 교환에 의한 본당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한다.  
4) 교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은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협의 실천한다.

는 목적하에 정기회를 갖기로 합의된 것을 보게 되었다. 정기회 내용은

1) 월례회를 갖는다.  
2) 월례회는 각 본당을 순회하면서 행한다.

3) 회의는 평일에 시행하고 저녁식사는 개회본당에서 간단히 준비한다.

그리고 회의순서도 목적과 부합되도록

1) 개회기도(주모경: 주회본당회장지도)  
2) 주회본당 진부인사  
3) 전 회회록 낭독(서기)  
4) 영적복서 및 해설(주회본당회장)  
5) 주회본당의 현황설명(주회본당회장)  
6) 토의사항(지구회장)  
7) 지도신부 총평(지도신부)

8) 폐회기도(평신도사도직기도: 주회본당 회장)의 순으로 결정하고 1 시간내에 끝나도록 합의되었다.

〈임원진으로는〉  
지구회장 유의중(마치아) 형제(청량리)  
부회장 유호빈(스테파노) 형제(담십리)  
서기 김중원(스테파노) 형제(중곡동)

(부회장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고 5차 정기월례회에서 서진영(베드로) 형제(화양리)가 피선됨)를 선출하였으며 1년간을 위하여 결정한대로 시종일관하게 착실히 지켜왔던 것이다. 그후 이어서 왕십리, 행당동, 목동, 제기동, 회장님들이 참가하게 되어 15개본당이 되었으며 구리읍과 거여동성당만이 아직 회장선정이 없어 불참한 가운데 있으나 곧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 본당 巡廻... 成功談 들으며 討論벌여 教會발전·平信徒지도자養成에 기여... 不遇이웃돕기도 회합통해 하느님事業 全力할 수 있는 勇氣얻어

### 2 대 화

회의는 정중하고 엄숙하게 주도자의 리드에 따라 진행되지만, 주회본당 현황이 설명될 때에는 질문이 배출한다. 무엇보다도 이 본당에 와서 장점을 배워 가려는 의지 표현이라 여겨지며 아주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져 전혀 지루한 적이 없다.

물론 수준이 높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그러하겠지만 본당회의를 많이 주도하시고 계신 분들일뿐 아니라, 교회내에서 오랜 기간을 평신도사도로서 일하신 경험들은 교회일인 한 모두 생각과 뜻이 같고 순명과 사랑

의 실천에 훌륭한 크리스찬인인 까닭이라고 여겨진다.

회의중에는 말을 전락하시던 회장님들은 이 회의가 종료되고 회식(저녁식사)이 시작되면 무로하지 않게 각 본당의 자랑이라든가, 성공담, 유모어의 꽃이 핀다. 십자가의 힘한 힘을 같이 걷는 형제들이 만나기만 하여도 반갑고 기쁘게 저녁 늦게 8시나 되어 같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맛도 좋거니와 즐거움기 한이 없다.

더구나 서로 걱정하고 있던 일들이 어느 성당에서는 이렇게 하여서 성공하였다, 실패하였다 하는 일들은 사도직 활동에 산 교훈이 되고 그렇게 좋은 일들을 실행치 않고 있던 본사에서는 자각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겠다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구나 어려운 역경 가운데 피나는 노력으로 성당이 신축된 승은 애기들이라든가, 병당자 회무를 위한

꾸준한 정성의 성공담, 모두가 외면하는 불우소년들의 사랑의 야간 학교등의 얘기가 수없이 나오며 눈시울이 젖어오는 감동과 격려의 박수는 더 한층 굳은 신념으로 하느님 사업에 전력할 수 있는 용기를 줄어는 불림이었다. 원칙도 규제도 없이 자연스럽고 행하여지는 회식 중 대화는 유익하고 성스러우며 진정한 의미의 실제 회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 3 타 부

회의중이나 회식중이나 하면 앉되는 타부가 있다. 혹 가다가 무의

식중이라도 타부를 어기는 말이 나올라치면 지도신부님의 스름하는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 타부는 신부의 비평이나 교회내에 자랑스럽지 못한 일을 화제에 올리는 것이다. 이 타부는 지도신부님이 제정하시고 지켜가시는 파수꾼이다. 하긴 남의 힘구나 하는 회의가 되어서는 곤란한일이 아닌가?

### 4 지도자

어느 모임에서도 역망있는 지도자는 그 모임을 살린다. 「용장 약술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회합 때 다 꺼안울듯이 반겨 맞아주는 지도신부님은 한번의 결석도 지각도 없이 항상 미리와서 반겨주신다. 더구나 지구회장 유의중 형제는 회합전에 소집통지서를 개개 회원에게 내고도 회합 전일이면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려하시고 회합 후에는 회의 보고서를 작성 송부하고 계신다. 지구회장이 달변가도 아니요 석학도 아니며 더구나 한가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성실로 이끄는 우리 제 3 지구는 복중에 제일 큰 훌륭한 지도자를 맞는 복을 주신 것이다. 더우기 15개 본당의 회장들의 덕망 높은 인품에 주님께 순종하시

는 희생적인 협조와 유래는 참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을 발전하는 과학문명시대에 적용하는데 힘써 나가고 있으며 각 본당신부님의 깊은 관심속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 오늘의 제 3 지구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 5 맺는말

「당신들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합하여 청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느님께 제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마태오 복음 18장, 19절-20절의 말씀이다.)  
이제 본당의 무거운 짐을 진 회장님들이 매월 만나 오손도손 교회를 발전시키고자 논의하는 일들에 어찌 성신의 도움이 없겠는가? 우리 제 3 지구 「평협」은 천주님의 은총 아래 일로 발전하게 되리라 믿는다.

(중곡聖堂)

## 教區 動靜

### 初代 濟州 教區 長에 朴正一 주교가 着座

濟州 教區, 自治 教區로 승격

光州 大教區에서 분리되어 지목구로 설정된지 7년만인 지난 5월 31일 濟州 教區가 自治 教區로 昇格되었으며 初代 教區 長에 朴正一(미카엘·51歲) 주교가 着座했다. 교황대사 「도세나」 大主教 主禮로 거행된 朴正一 主教 叙品 및 着座式에는 용공의 大主教·장병화 主教 등 많은 主教들과 聖職者 그리고 1천餘 名의 信者들이 참석 激勵을 보였는데 朴正一 主教는 「중앙성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제주교구가 社會속에서 存在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司牧方針을 밝히고 「40 만 제주도민이 福音化 隊列에 적극 참여, 협조해 주도록」 요청했다.

### 金基喆 회장 留任

서울 大教區, 18일 7次 定總

서울 大教區 平信徒 使徒職 協議會는 6월 18일(토요일) 午後 2時 서울 平信徒 會館 會議室에서 77年度 第 7次 定期 總會를 열고 金基喆 會長을 留任시키는 한편 副會長에 조동식(문암本堂), 최상선(신림동本堂), 김용관(세종로本堂) 씨 등 3名을 새로 뽑았다.

景甲龍 主教와 金壽昌 指導神父任 및 40個 本堂 代表(會長) 40名, 曠選 代表 6名 그리고 서울 平協 部次長 8名 등 모두 56名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總會에서는 「76年度 決算 報告와 事業 報告」 「監査 報告」 「任員 改選」에 이어 3백 92만 9천 원으로 짜여진 77年度 豫算案과 4백 50만 원으로 짜여진 78年度 豫算案을 審議·通過시켰다.

이날 總會는 平協이 또한 自律的 協議會로서 能動的 活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各 曠選 團體의 本堂 分會 組織」 「地區 會議을 통한 本堂 平協 組織 強化에 力點을 두기로 決意하는 한편 全國 平協 總會에 1) 終身 副 祭 職 任 職 2) 營 業 體 系로 變 換 方法의 採 擇과 統 一 3) 聖 歌 集의 統 一 및 新 曲의 「이메지」 投 影 映 像을 建 議하기로 했다.

이날 總會에서 留任되었거나 새로 選任된 會長團은 다음과 같다.  
會長 金基喆(반포) · 副會長 조동식(문암동) · 최상선(신림동) · 김용관(세종로) · 監査 金仁경(상봉동) · 주병진(가외동) · 고문 나항윤(세종로) · 정일진(의사회) · 한동연(천부회장)

### 3백 69만 2천여원 成聖祝賀禮物 증정

서울 大教區, 金基喆 회장

金基喆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회장은 지난 3월 25일 明洞聖堂에서 舉行된 景甲龍 補佐 主教 叙品式에서 平信徒를 대표하여 평신도들의 정성어린 成聖祝賀禮物 3백 69만 2천 2백 60원을 증정했다.

### 水原 教區, 平協을 再組織

水原 教區는 지난 4월 5일 평신도 사도직의 重要性과 필요성을 절감하여 平協活動 교구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고동성성당」에서 水原 教區 平信徒 使徒職 協議會를 再組織했다.



1965년 11월 18일 公布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거 지난 68년 7월 23일 우리나라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전국협의회」(以下 平協으로 略稱)가 결성되었다.

## 正圓안에 平信徒 두손이 十字架 떠받들어 十字架 에워싸고있는 부분은 聖體를 상징

代會長으로 모시고 出帆한 平協은 그 안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每年 11월 中旬 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정하여 信者 倍加運動·教務金 倍加運動·出版物 普及運動을 積極展開하고 있다. 平協에서는 이같이 뜻깊은 「평신도의 날」(第 9回, 76.11.14)을 맞아 그동안 準備中이던 평신도 聖體를 새로 製作·全國 教區와 本堂 平協에 配布하고 있는데 이 聖體는 서울 大學校 美術大學 教授인 金教滿 兄弟의 作品으로 無窮하고 遵嚴性을 나타내는 正圓(正圓)안에 平신도들의 두손이 하느님을 象徵하

## 火災의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 消火用 自動撒水器 메이커인 極東스프링크라(株)는 生産과 設備體制를 完全確立, 人命과 財産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守門將으로서 24時間을 勤務하고 있습니다.

- 營業種目 □
- 各種消火機械製作
- 各種消火設備
- 스프링크라 헤드
- 스프링크라 設備
- 各種 空氣調和 設備
- 設計·施工·監理
- 自動화재警報설비
- 에어폼 헤드
- 泡消火 설비
- 아람 밸브
- 水噴霧 設備
- 結合金具

### 極東스프링크라株式會社

代表理事 金聲鎮 (釜山 1次)  
本社·工場 : 京畿道 富川郡 春衣洞 山 4 외 1  
☎ 032-5-4412 (우) 田田田-田田  
서울事務所 : 서울 龍山区 漢南洞 683-116 極東빌딩  
☎ 43-8495, 42-2300 (우) 田田田

## 平協紙창간을 祝賀합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 오 로 양 복 점

(PAUL TAILOR)

서울 중구 저동 1가 43-5  
(중앙극장 옆 성모약국 2층)  
☎ 0406·2010

